안녕하십니까? 김원중입니다. 이번에는 5강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죠?
그런데 손자는 백전백승이라는 말 자체를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번 싸워서 백번
이겨봤자 그것은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얼마나 자주 싸우십니까?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싸우지 않고 즉,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기술을 터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자병법 모공편을 보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전쟁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전쟁이란 정치적 목적을 폭력적인 수단을
써서 관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분명히 정치를 폭력 즉, 힘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손자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최고의 전쟁은 뭘까요? 그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벌모와
벌교. 말하자면 상대편을 벌모, 모략으로 치는 것. 그다음에

벌교, 외교 전략으로 상대편을 치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19세기의 태국은 그 당시 열강들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동쪽에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서쪽에 있는 미얀마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현명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서 결국은
지배를 안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태국이 택한 것은 벌모

그다음의 전략인 벌교의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벌모와 벌교를 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고수가 쓰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흔히 하는 벌병 즉,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쟁하는 것이라든지 공성, 성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하수의

공격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손자는 상병,
최상의 용병은 벌모이고 그다음은 벌교이고 또 그다음은

벌병이고 그 맨 마지막이 공성이다. 손자는 이런 생각을 했죠.
공성, 흔히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성을 공격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손자는 성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장수가 택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성을 공격하다

보면 마치 병사들은 개미 떼가 달라붙어서 성벽을
기어오르지만 그 성벽 위에서는 때로는 돌로, 때로는

기름으로, 때로는 불로 아래에서 기어 올라오는 병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희생이 많아진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을 치르는 장수야말로 가장 나쁜, 하책의
장수다, 하급 장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모략과 외교로써 전쟁을 하면서 이겨야지 그 전쟁을
싸움 그 자체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4년 정도 전이죠. 2014년 6월 달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진핑 주석은 손자병법을 통한 외교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외교 전략은 첫 번째는 벌모. 즉, 모략으로써 상대편을 치는
건데 어느 나라를 공격하는 거냐면 미국을 힘에서는 그 당시

비교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을 모략으로써 미국을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벌교, 외교 전략으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거. 그것이 어느 나라냐?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 이 2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철저히 일본을 공략함으로써
외교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일본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벌병입니다. 벌병은 중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치는 건데 어느 나라냐면 바로 남중국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공성 방법은 시진핑 주석은 쓰지 않는다라고 그 당시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벌모나 벌교가 아닌 벌병의
방법으로 대응해서 대단히 문제가 된 전쟁 하나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삼국지를 읽어본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삼국지에서 3가지 큰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소와 조조의 전쟁인 관도대전. 두 번째는 조조와
유비, 손권이 전쟁을 함께 치른 적벽대전. 세 번째는 유비가

오나라 손권과 싸웠던 이릉대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3가지
전쟁을 통해서 삼국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릉대전을 한번 가지고 이릉대전을
통해서 유비가 왜 패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릉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촉나라와 오나라가 적벽대전을
계기로 해서 촉오동맹을 맺었던 것이 단 한 번에 깨지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죠. 그 당시에 형주를 장악하고 있던 관우가
갑자기 여몽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형주를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당시 유비가
도원결의를 맺었던 관우가 죽으면서 이성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수들을
다 주변에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내 아우가 죽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장수들한테 오나라랑
한번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장수들이 다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오나라랑 동맹관계

...[2019-11-04 오전 11:38:29]

즉, 외교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바로 위나라의

조조가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는 위태로울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비가 그 말을 듣고 장수들의 말을 듣고 바로

오나라 공격하는 것을 철회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등장해서
한마디 합니다. 형님! 도원결의를 잊으셨습니까? 관우 형님이

객사를 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비 밑에 바로 진복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진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소한 의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의에

어긋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유비가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관운장과 짐은 한 몸이거늘 바로 저놈을

끌어내거라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나라랑 촉오동맹이 맺어진 지 20여 년 만에 결국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당시 유비의 나이는 무려 61살의 나이였고
오나라의 장수는 27살에 불과한 육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손은 유비가 병법을 잘 알지 못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강의 그 길이에 걸맞게 화공 전략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면서 진지를 구축했고 거기에 유비가 대응을
못하고 결국은 완전히 패했습니다. 패해서 유비가 면목이

없죠. 왜? 성도로 돌아갈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백제성에서 외롭게 한 2년 정도 우울하게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만약에 유비가 관우가 전쟁에서 졌고 또
질 수 있는 것이 또 전쟁이라고 한다면 굳이 촉오동맹이라는

벌모 전략이죠. 그러니까 외교적 관계를 깨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결국은 유비는 화를
자초했던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대단히 많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죠. 특히 지금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능사일까? 아니면 상대편과 화해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늘 선택하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약에

경우라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미국과 맞상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라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냉정하게 냉철하게 처리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명의 친구보다 한 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는 중국 교수들과 같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특히 싸우는 것은 아주 싫어하죠.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출하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는 방향을 늘
선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가능하면 중용의

태도로써 시비와 좋고 싫음을 피력하지 않고 나는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그리고 잘 끌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11-04 오전 11:38:29]